

호랑이 명가재건 초석 다졌다...구단이 '반석'에 올라야



2016 시즌 준비 이렇게

주먹구구식 운영 탈피

확고한 색깔 없이 중심 잃어

전문성 갖춘 스카우트팀

팀장 교체 빈번...용병 농사 실패

군 입대·전력 보강 '발등의 불'

한승혁·황대인 등 줄줄이 입대

윤석민 선발 복귀...마무리 비상

드래프트·FA 역량 집중해야

‘최하위 후보’ KIA는 올 시즌 끝까지 가는 승부로 식어버렸던 팬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기대 이상의 행보로 명가재건을 위한 기초를 다진 2015시즌.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화의 바람을 신바람으로 바꾸기 위해 빠르고 세밀하게 2016시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프로야구 최다 우승팀이 추락을 거듭하며 팬들의 신뢰를 잃는 데는 구단의 책임이 컸다.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며 ‘KIA 타이거즈’만의 확고한 색깔과 큰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었다. KIA 구단은 올 시즌을 ‘리빌딩해’로 천명하면서 비전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타이거즈 시스템을 구축해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 역량과 의지가 당장 내년 시즌 평가를 받게 됐다.

기대 이상의 올 시즌이었지만 내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용병 농사는 실패했다. 부상 불운 속 함비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떠났고, 뒤늦게 교체한 용병 예만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땅의 정령’으로 사랑받았던 스티븐슨도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그나마 필이 ‘모범생’ 역할을 했지만 타선의 동반 침체 속에 2%의 폭발력이 부족했다.

KIA는 조찬관 팀장이 신생팀 kt로 이동한 뒤 두 차례 스카우트 팀장을 바꾸었다. 잠시 공석이었던 팀장 자리에 정화열 배터리 코치가 이틀을 올렸지만, 올 시즌 2군 감독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팀장 공백기가 생겼다. 그리고 올 시즌 중반에야 김지훈 배터리 2군 코치가 팀장 자리에 앉았다. 구단의 기본 데이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책임자 없이 스카우트팀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육성만큼이나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견고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군 로테이션’과 전력 보강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3년 KIA는 즉시 전력감을 이야기하면서 대체 중심으로 신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많은 이가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군복무를 해야 할 나이에 직면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올 시즌 중반에도 많은 선수가 군복무를 위해

떠났고 떠날 예정이다. 올 시즌 1군에서 역할을 했던 이들 중에서 사이드암 박정수와 외야수 박준태가 경찰청에 지원을 한 상태. 대졸 신인인 투수 문경찬과 고졸 신인인 ‘미래의 거포’ 황대인의 군입대도 일찌감치 결정됐다. 유창식과 한승혁을 놓고 고민을 했던 한 자리는 한승혁으로 결정됐다. 구단은 최영필(63야닝), 심동섭(57야닝)에 이어 순수 불펜진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55.1야닝을 소화했던 한승혁도 상무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민의 선발 이동이 준비되면서 마무리부터 해서 정비할 게 많지만 들어올 전력은 여의치 않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김진우의 내년 시즌이 요원하고, 한기주와 광정철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상 변수가 있다. 지난해 알토란 같았던 김태영이 올 시즌을 아쉽게 마감한 가운데 배태랑 최영필과 김광수도 나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투수 김윤동과 포수 한승택이 들어오지만 1군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걸린다. 그나마 1군에서 역할을 했던 박지훈은 1년이 더 남았다. 가장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변수 많은 자원은 손영민이다. 내년 4월 군복무가 끝나는 만큼 구단이 유심히 컨디션 점검하고 있지만 긴 공백이 문제다.

외국인 선수 카드, 2차 드래프트와 FA(자유계약)영입 등 2016시즌을 위한 구단의 역량이 중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운 시즌이었다 선수 모두가 MVP”

고향팀서 첫 시즌 김기태 감독

“재미있는 시즌이었다. 고맙고 죄송하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가을이 끝났다. KIA는 지난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0-9 영봉패를 당하면서 5강 꿈을 접어야 했다. 6월 LG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144경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가는 김기태 감독은 5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즐거웠던 시즌’으로 2015 시즌을 돌아봤다. 또 그는 최선을 다해 기적 같은 가을 보낸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5강 마지막 경기에서 쓸쓸히 돌아야했던 KIA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해줬다. 스태프들도 올 시즌 잘 따라와 주었다. 포스트 시즌에는 못 나갔지만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부족했던 점 잘 채우고 내년에는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하위 후보로 시작해서 ‘잘 싸운 5강 후보’로 마무리하게 된 2015시즌. 선수들이 많이 성장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게 김 감독의 이야기다. 고향팀에서의 첫 시즌은 그에게 큰 즐거움이기도 했

최하위 후보서 ‘잘 싸운 5강 후보’로 마무리

선수들 많이 성장했을 것...내년이 기다려져

김 감독은 “(우리가 왜 선수가 없느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시즌, 새로운 것을 많이 봤다. 시즌 시작하면서 6연승도 해보고 보이지 않은 에너지들이 많이 느꼈다. 우리 선수들에게 놀랐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봤다. 뒤 끝내기도 치고 그랬지 않느냐. 즐거운 시즌을 보냈다”며 “어제(4일) 같은 경기도 해봤는데 선수들 긴장도 하면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본다.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대범하게 경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선수들도 알게 됐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안 벌어지고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맙다. 70승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70승에 가깝게 왔다. 내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족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선수들도 배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KIA 유니폼을 입으면서 김 감독은 “박수받는 야구, 팬들이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상성에 질만 지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시즌 마지막까지 팬들은 약체 KIA의 5강 싸움에 환호했고 박수를 보냈다. 자못하게 이어졌던 삼성전 열세도 만회했다.

약속을 지킨 김 감독은 “내년에는 열세였던 팀에 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 때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경기 많았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진다. 순위가 이래서 MVP를 뽑기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모두 잘했다. 기록은 좋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해냈다. 고맙다”며 “마지막 두산전에서 우리팬분들 즐겁게 돌아가셔서 했는데 죄송하다.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같다. 감사하고 모두 다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고향팀에서의 첫 시즌 소회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프로야구 4월 1일 금요일 개막

시범경기 3월 8일~27일

2016시즌 KBO리그 개막전은 금요일인 4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KBO는 5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5년 제7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2016년 경기편성 원칙에 대해 논하고 개막일을 확정했다.

내년 KBO리그 개막전은 4월 1일에 열린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KBO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건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개막 3연전 경기 시작 시간은 1일 오후 7시, 2일 오후 5시, 3일 오후 2시다. 시범경기는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올해보다 팀당 4경기가 늘어난 18경기씩을 치른 다.

KBO는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자유계약선수(FA) 관련 일자와 2차 드래프트 시행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규정대로라면 KBO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에 FA 자격 선수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11월 8일에 개막하는 프리미어 12 대회 때문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프리미어 12에 참가한 FA 선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O는 올해 11월 18일에 FA 자격선수를 공시하고, 20일에 FA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 KBO가 11월 21일에 FA 신청 선수를 공시하면 해당 선수는 22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하고,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9개 구단과 협상한다. 12월 6일부터는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2차 드래프트 시행일은 11월 23일에서 11월 27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고척스카이돔, 2017년까지 '넥센 안방'

2008년 프로야구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한 넥센 히어로즈가 임시로 대관했던 1만석 규모의 목동 야구장을 떠나 국내 최초 돔야구장이자 2만석 규모인 고척스카이돔에 새 등지를 튼다.

서울시와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내년 3월 프로야구 정규시즌부터 2017년까지 고척돔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넥센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수차례 만남으로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는 목동야구장과 마찬가지로 1일 대관방식으로 고척돔구장에서 연간

100경기 정도를 치르게 된다. 돔야구장 우선 사용과 돔구장 매점, 광고시설물 등 수익시설 일부를 넥센 측이 쓸 수 있다. 시는 또 구단이 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 교통과 소음 등 환경문제 해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돔구장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 구단이 참여하는 돔구장 운영협의제도 구성된다.

시와 넥센 히어로즈는 고척돔구장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양측 간에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계약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텍사스, 4년 만에 지구 우승...추신수, 美 진출 15년만의 감격

“오랜 기다림, 이런 기분 느끼려 텍사스 왔다”

미국 진출 15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맞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이 기분을 만끽하려고 텍사스에 왔다”며 감격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9-2로 대승을 거두며 정규리그 마지막 날 4년 만에 지구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귀중한 안타와 볼넷으로 세 차례 출루해 소속팀의 지구 우승에 큰 디딤돌을 놓았다.

세 번째 도전 만에 4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텍사스 선수들은 ‘서부는 우리 것’이라는 지구 우승 티셔츠를 입고 서부지구를 제패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우승이 결정된 뒤 그라운드와 클럽하우스에서 삼패인 세례를 맞은 추신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오늘은 이 기쁨을 즐기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다음은 추신수와의 일문일답 -마침내 우승을 했다. 소감을 말해달라.

▲기분이 너무 좋다.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우승을 하고 이런 자리에 오니까 정말 우승을 했는지, 진짜인지 실감이 안 난다. 거짓말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상황을 즐기고 싶다. 지구 우승을 했지만, 오늘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포스트 시즌을 향해 정말 큰 첫발 내디뎠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언제쯤 승리를 확인했다.

▲7회 6점짜리를 냈을 때다. 이제 (승리 앞에) 다 온 것 같았다. 그러나 어제처럼 9회에 5점이나 주고 역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가 4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4일(현지시간), 우승의 주역이 애드리안 벨트레가 클럽하우스에서 인터뷰 중인데 추신수에게 맥주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패를 당한 경우가 있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동료 선수들도 더 집중력 있게 해준 것 같다. 어렵게 이긴 것 만큼 너무 기쁘다.

-미국 진출 후 첫 우승인데.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어 텍사스와 계약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텍사스 입단 2년 만에 우승을 이뤄 너무 좋다.

-시즌 전 5년 전 내 모습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나.

▲팀을 이런 자리에 올려놓는데 힘을 보탠 것 같다. 기분이 좋다. 시즌 초반에 고전했지만, 나는 자신을 믿었다. 그간 해온 경력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격려해주었다.

-두 번째 포스트시즌 무대에 출전한다. 각오는

▲일단 오늘을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마음을 다듬겠다. 잘 정리해서 준비 할 것이다. 내 자신도 이렇게까지 기량을 회복할 줄 몰랐다. 역시 야구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 같다. /연합뉴스